

목 차

비를 간구하는 이유	2
연합 기도회가 필요한 이유	4
연합 기도회란 무엇인가?	6
시작하는 방법	7
경배와 찬양 (Adoration and Praise)	11
회개 (Confession)	12
간구 (Supplication)	13
감사 (Thanksgiving)	14
믿음에 관한 성경절	15
연합기도회를 마무리하는 법	17
기도회 사회자의 역할	18
마음의 준비	18
경건의 모본	19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20
기도는 많이 대화는 적게	20
각각 짧게 기도하기	21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21
부록 : 영감을 주는 자료들	22
기도의 네가지 주제	22
거짓 부흥을 주의할 것	27
참된 부흥의 이해	28
말씀으로 시험함	30
공중 회개 기도	33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38
꾸준함의 필요성	39
격려사	42
기도회와 부흥에 관한 자료들	43

비를 간구하는 이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슥 10:1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복음전도 70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하나님께서 점점 쇠약해 가는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회중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길을 청결히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3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 흑암은 죽음의 휘장처럼 지상을 덮고 있다.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설과 사악한 기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58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

“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우리의 일꾼들이 더욱 깊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주셨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더욱 충만한 회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오순절날 제자들의 계속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은 성령이 임했다. 오랜 세월동안 하늘의 영향은 억제되어왔지만, 겸비한 사람들의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결과로 인간의 입술에서 어떠한 자백이 흘러나왔으며 심령에서는 어떤 겸손함이 드러났는지 보라. 어떠한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음성과 어우러졌는지 보라. 온 하늘은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자 귀기울이고 있다.” The Kress Collection 31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자들의 띠가 온 세계를 둘러야 한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자. 이웃들과 함께 모여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의 축복을 가진 천사들이 보내신 바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반사함 121

연합 기도회가 필요한 이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9, 20

“하늘에서 온 능력으로 우리는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이 일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고 응답될 것이라는 하늘의 약속이 있으므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 약속은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조건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얻는 응답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주어진다. 그 능력은 개개인의 연합과 하나님과 동료를 향한 사랑을 비례하여 주어질 것이다.” 서신 32, 1903, p. 5

“이 얼마나 보배로운 허락의 말씀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 작은 무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복음전도 414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려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히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도 들렸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심령들은 더욱 굳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 교회증언 5권 161, 162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1

“**믿음의 형제들은 힘을 합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전능하신 분의 팔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 때 하늘과 땅은 이 사업을 위해 밀접히 연결되고, 잃어버린 양이 집을 찾아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FE 210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1, 12

“**주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가 매우 필요하다. 또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그들의 열렬한 간구를 드리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다.” 하늘 조정에서, 91

“모든 교회에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합된 기도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모두가 연합하여 그들의 믿음과 간구로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라.” Historical Sketches of the Foreign Miss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29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연합 기도회의 목적은 성령 충만을 위해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격발되고 대쟁투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연합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연합 기도회란 무엇인가?

만일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 또는 교우들과 함께 연합 기도를 드리고 싶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면 이 소책자를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도회의 유형은 작게는 2명에서부터 많게는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것입니다. 기도 주일이나 집회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순서나 특별 기도회, 가정 예배 등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회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회는 잘 준비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자는 몇가지 안내와 지시사항들을 일러준 후 4가지의 기도 주제를 놓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놓고 기도회를 할 경우 각 주제별 시간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영 / 안내 : 5분
 경배 / 찬양 : 10분
 회개 : 5-10분
 간구 : 20 분
 감사 : 5-10분

기도회 사회자는 주제가 다음 주제로 바뀔 때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모든 기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연합 기도회이므로 모든 참석자를 기도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도는 대화형 기도입니다. 기도의 장이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시작하는 방법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간단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기도회의 진행법을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익숙해지게 되면 스스로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진행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1. 네 가지의 주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배와 찬양 :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요구사항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십시오. 영감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그 찬양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죄의 회개 : 회개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통로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 59:1, 2; 요일 1:9) 물론 어떤 죄들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만 회개해야 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공중 기도회에서 회개할 때(약 5:16)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적 행음이나 관련된 생각 등은 공중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9장 4-16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공개적인 회개를 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회개야말로 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기도 유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은밀한 가운데서든 아니면 공공연하게 하는 회개이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 더 보시려면 33페이지 공중 회개 기도를 참조하세요.)

간구 :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뢰니다. 영적인 간구와 육적인 간구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7:7)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 4:2)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초점이 성령님께 맞춰지도록 합시다.

기도회 전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제목을 내어 놓으면 다른 분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 21

2. 사회자의 진행을 따릅니다. 사회자는 각 주제별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변환되는 것도 사회자의 몫입니다.

3. 한 사람이 여러번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한번에 조금씩만 하십시오. (1~3문장씩) 그리고 꼭 해당되는 주제에 따라서 하십시오. 경배, 회개, 간구 등 해당 주제만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4.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5. 기도를 하실 때는 크게 소리를 내어 다른 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6. 성경의 약속들을 주장하시고 기도 중에 찬미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찬미를 주신다면 기도회 중에 찬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따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찬미도 기도에 못지 않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새자녀 지도법 523) 기도회에서 연합하여 찬미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7.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

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실물교훈 147

8. 시작할 때부터 가까이 모여 앉아서 시작하십시오. 가까이 모여 앉아야 서로의 기도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연합의 정신이 더욱 고취될 것입니다! 연합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한 가족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기도회 중에 적당한 약속의 말씀이나 찬미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찬미는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제가 변환될 때마다 함께 찬미를 부르게 되면 모인 사람들을 예배와 찬양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간단한 곡을 선택하십시오. 찬미가를 사용하게 되면 곡을 찾는 부산함 속에 경건의 분위기가 자칫 깨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주제별로 추천할 만한 노래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11-14 페이지)

경배와 찬양

시작하는 찬미 : 오 주여 비오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눈을 예수께 돌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4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2, 6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1, 3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계 4:8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대하 7: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경배 찬미 : 사랑해요, 거룩 거룩 거룩, 목 마른 사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죄의 회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1, 2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 103:12

회개 찬미 : 자비로운 주 하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눈을 예수께 돌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간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 18:19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 8

“...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약 4:2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렘 32:17

간구 찬미 :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감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0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 103:2, 3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4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 10:23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1, 6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감사 찬미 :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저 사망에서 놓여, 저 산을 높이 만드신, 나의 생명 드리니,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빈들에 마른 풀 같이

믿음에 관한 성경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 9:29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 18:14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대하 16:9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 81:10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 20:7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4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1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시 55:16-18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0:29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2, 13, 18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벰후 1: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3

연합기도회를 마무리하는 법

기도회를 마칠 때 다음과 같이 기도를 계속할 것을 권장하십시오.

1. 연합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권하십시오. 소책자를 나눠주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2. 777 기도를 적극 홍보하십시오. 777 기도는 아침 7시와 저녁 7시에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지 시각에 맞춰 진행되어 세계를 기도의 띠로서 잇는 운동입니다.
3. 꾸준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다락방의 사도들의 경험을 체험하려면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4. 연합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경험담을 서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음 기도회에 참석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가 직접 간증을 수집할 수도 있고 부흥과 개혁 홈페이지(www.revivalandreformation.org)로 접속해서 전세계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기도회를 하는 중에 마음 속에 얻은 깨우침대로 생활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죄악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회 사회자의 역할

이 장에서는 사회자의 역할과 주의점들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기도회 사회자로서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기도회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된 채 마지막 순간에 성급히 준비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진 경우와 비교해 훨씬 효과적이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는 긴장 속으로 돌입하고 있다. 오락에, 돈 모으는 일에, 권력 다툼에, 생존 경쟁에 몸과 마음과 혼을 몰두케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이 광란하는 세력의 진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 46:10).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한다. 빠른 발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서 잠깐 동안 그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듯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이런 일꾼은 힘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최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지·덕·체의 능력을 새롭게 하

기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고상해져야 한다. 이 힘을 얻을 때, 그들에게서는 신선한 생명력이 소생될 것이다. 피로한 몸과 두뇌는 생기를 회복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교제하는 일이다. 부모와 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아가서에 묘사된 경험을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배울 때에, 자녀들과 학생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교육 260, 261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 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청년 249

경건의 모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주의 대왕의 보좌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자는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경건의 모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궁한 위대함과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불러 일으켜진다. ...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은 경건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 천사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얼굴을 가리운다. 하물며 타락하고 죄많은 우리가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때는 과연 어떠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사회자의 임무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주제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가끔 대화의 맥이 끊겨 침묵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의 간격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타는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자로서 곧바로 기도를 진행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마음을 자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도록 여지를 남겨 둡시다.

기도는 많이 대화는 적게

사단은 우리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볼 때 좋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회 전에 기도 제목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참가자들이 간구의 기도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문제를 아뢰도록 합니다.

“연합하여 그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을 적게 하라. 아무 빛도 가져오지 못하는 말을 하는 데 많은 귀중한 시간이 허비된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혜를 위하여 금식과 기도로 형제들이 연합하도록 하라.” 음식 188

각각 짧게 기도하기

리더로서 기도를 짧고 간단하게 하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은 리더의 모본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지시사항을 어기고 기도를 할 때 계속 혼자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고 인내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기도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집회에서는 **짧게**, 그러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길게 기도하라. … **짧고 간단명료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라.** 당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배우라.” MR 10, 130

세심한 지도를 기울일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여러시간 기도하며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생소하게 느낄 것입니다. 사회자가 너무 오래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되 가능한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참가자들의 기도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합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은 종종 너무 길고 지루한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한 시간 내내 기도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가지 주제

를 놓고 각 참가자들이 짧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설교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기도를 삼가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마치 20분 정도만 기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 기도한 적이 없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부록 : 기도법의 영감과 참고 자료

기도의 네가지 주제 (ACTS)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앞서 나눈 네가지 주제, ACTS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실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매우 심오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주의 기도 (마 6:9-1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찬양/예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찬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하나님의 뜻을 구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개인적 필요를 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회개와 겸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영적 승리를 구함)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찬양, 감사).

“주기도문은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 암송하도록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

중, 곧 단순하고, 진실되고 함축적인 기도의 실증이다. 간단한 기원으로써 주님에게 그대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이와같이 함으로써 그대는 예수님을 환영받는 손님으로서 그대의 가정과 마음에 모셔들인다.” 자녀 524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 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증언 5, 317

기도의 실례들 :

느헤미야의 기도 : 느헤미야 1:5-11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 : 느헤미야 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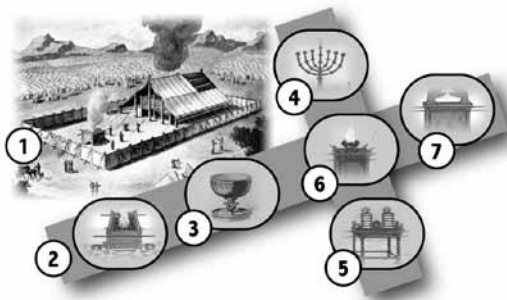
솔로몬의 기도 : 열왕기상 8장

다니엘의 기도 : 다니엘 9:3-20

오순절의 기도 : 사도행전 전체

성소의 모델

“오 하나님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이까?” 시 77:13 (한글 킹제임스역)



1. **감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시 100:4
2. **회개:** 성막의 첫 사역은 번제단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시인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주장한다. 회개는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비를 받는 선제조건이 된다. 대하 6:26, 27; 레 4:26; 롬 10:9-13
3. **고백&정결케 함:** 물두멍에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케(침례) 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게 된다. 출 30:18-21; 엡 5:26
4. **성령을 구함:** 성소에 들어서면 일곱가지촛대를 보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된다. 계 1:12; 눅 11:13
5. **영적, 육적 양식을 간구:** 떡상에 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양식까지 공급하여 현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요 6:35; 사 33:16; 빌 4:19
6. **중보자를 통한 간구:** 분향단에 오면 그리스도의 의로 우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감쌀 때 타인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롬 8:26, 34; 사 59:16; 빌 1:3-6

7. **예배와 찬양 속의 감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예배와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게 된다.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을 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 150:1, 2; 히 10:19-23

이런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실물로 지어진 성소와 성전에 임재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6).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요일 1:9) 진실되게 그분을 찬양하며 돌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채우실 것이다. 자아와 자기 의를 구하고자 하는 정신은 더이상 설 곳이 없다. 그분의 영광이 온 전을 가득 채우게 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대하 5:13,14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므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

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써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의 썩어질 것으로 더러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는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과 자복을 모아 받으시며 이 가운데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받으신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공로로서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받으시는 바 된다. 또한 그 때에 은혜로운 응답이 내리게 된다.” 1 기별, 344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되려면, 우리의 간구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귀기울이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우리가 미약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그분의 발앞에 나아오지만, 우리는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고, 죄를 자복하고, 그분께서 친히 하신 약속들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간다.” 리뷰 1895, 5, 28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실물 159

거짓 부흥을 주의할 것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훈련이나 기도 방법들을 권장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강신술 운동, 신비주의와 초자연주의와 연관되었으며 명상기도, 향심기도, 반복기도, 미로명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크 핀리목사는 “Lord, Revive Us Again” 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주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아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는 교회 안에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

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 7:16)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쟁투 464, 465, 마지막 사건들 158

참된 부흥의 이해

우리가 거짓 부흥을 피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하지만 참된 부흥의 불길조차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 시대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은 보편적인 상태가 되었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에 대해서 그러하다. 불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낸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사람들로 말세의 기만에 빠지도록 한다. 다시 말해, 말세에 불신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큰 축복을 얻

기에 부적합한 준비를 한 자들이 될 것이다. (행 2:17, 1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른비’는 오순절에 주어지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복음의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 ‘늦은비’는 황금같은 추수를 익게 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오도록 할 것이다. 독자들이여, **그대들의 불신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큰 축복을 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선물 1권, 19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과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순절 날과 그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지금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광신주의를 주의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함을 입을 자들을 향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행 2:13)고 할 것이다. ...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은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조심하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고 부르짖는다. 인간적 흥분에 빠지지 않는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의문을 가지는 자들 속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You shall receive power, 322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

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율 2:12, 13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 우리 죄를 자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역사하신다는 참 부흥의 증거는 회심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심령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임을 알 수 있다.” 보훈 146

말씀으로 시험함

미혹의 어두움이 그리스도인들을 덮을 때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 (사 8:20)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쟁투 59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

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쟁투 595, 601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쟁투 519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智 등)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정로 94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즐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

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쟁투 621

공중 회개 기도

때로는 “공중에서 죄를 자백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알려진 죄, 개인적인 행동이나 태도가 단체에 걸림돌이 되어 끼쳐진 해악 등은 공중에서 자백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백이 바람직합니다. 화잇 여사가 1902년 대총회 중에 본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어떤 허물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을 허무사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당신의 은혜를 막지 못하게 하시고 통로를 주관하사 아무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영문찬미 322) 가 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질 뻔했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1903년 1월 5일, 캘리포니아 주 세인트 헬레나 GG 배틀 크릭 교회에게 - 어느 날 정오에 나는, 만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랐다면 지난 대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큰 빛을 가진 자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 집회는 끝났고,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땅할 만큼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고, 성령께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글을 썼고, 나는 배틀크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태버내클 교회의 강당에 모여 있었다. 기도를 드리고 찬미가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다. 가장 열렬한 간구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 집회는 성령의 임재로 특징이 지어졌다. 그 일은 더욱 절실해져 마침내 참석자 중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서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그들을 위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매우 엄숙하게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기별을 반복했다. “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자부심으로 인해 생각하는 바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지금 이것이 나의 상태인 것을 봅니다. 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정신은 완고하고 불의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철저히 살펴보신분의 귀중한 권면이 필요함을 압니다. 아, 그 말씀들은 얼마나 귀중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들이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7, 18).”

그 연사는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그는 애끓는 고백을 했다. 그리고 몇 사람의 형제들에게로 걸어나와서 한 사람씩 차례로, 그의 손을 뺀고 용서를 구했다.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은 용수철이 튀듯이 일어서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고 울었다. 용서의 정신은 온 회중에게로 퍼졌다. 그것은 오순절의 기회였다. 하나

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렸고, 밤이 깊어지고, 거의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일은 진행되었다.

다음의 말씀들이 분명한 소리로 자주 반복되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19, 20절).

아무도 진심으로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일에서 지도적인 일을 한 자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에는 그들의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태버내클 교회에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었다.

그 후 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한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의 펜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내게 들렸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셨다. 온 하늘은 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난 대총회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철저한 일을 이루었어야 했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자 실망의 고민이 나를 엄습했다.” 8T 104, 105

개인적 또는 공중 회개에 대한 원칙에 대해 더 살펴봅시다.

“성경에 명령하시되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약 5:16)고 하셨다. 기도해 주기를 청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뜻을 제시해 줄 것이다. “우리는 마음 속을 알아 낼 수 없고 또한 그대의 생애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는 다만 그대 자신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죄를 회개한다면 그 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사사로운 성질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일 2:1). 모든 죄는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나니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여야 할 것이다. **공개된 범죄는 공중 앞에 고백할 것이요** 이웃에게 범한 과실은 해를 당한 그 이웃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건강을 얻고자 하는 자가 만일 욕절한 죄를 범하였거나 그들의 가정과 이웃과 혹은 교회에 불화를 심어 분리와 당파를 일으켰거나 또는 어떤 나쁜 행사로써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였으면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와 그 해를 받은 당사자 앞에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교권 304

“모든 사람은 오류와 실수를 범하고 죄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악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형제들 앞에 잘못을 고백한다면, 그는 회복될 수 있고 죄의 결과로 얻은 상처도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길을 따르다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성과 형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 심장이 고동치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2, 16, 1890

“거룩하신 바위이신 주님께 떨어져 부서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에게 참되고 신령한 위신을 주실 것이다. **교만, 자존심 및 독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허락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말 것이며 그대들의 형제들에게 범

한 죄를 자복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기별 1, 326

“그대의 영혼의 건강과 형제들과의 연합은 이러한 노선을 선택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높이 세우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지만 회개하면 품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관대하게 여기어 회개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영혼의 단련을 거절해 버린다. ...

그들은 회개를 향한 길에서 벗어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본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타인의 잘못을 본다. 하지만 자신의 생애에서조차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남에게 줄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자만을 충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견책과 상심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목사와 신자들이여,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매일 매순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성경의 깨달음을 향해 굽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한다.” FE, 239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해야 한다. ...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는 스스

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 1:16, 17).” 정로 38, 39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 믿음이 없는 기도. 약 1:6,7; 막 11:24
- 나의 뜻대로만 하는 기도. 요일 5:14
- 상주시는 분보다 상을 바라고 기도함. 약 2:23
-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함. 약 4:3
- 불순종의 생애를 삶. 사 59:1,2; 시 66:18
- 쉽게 포기함. 눅 18:1-8
- 남을 정죄하는 정신을 가짐. 눅 6:37
- 용서하려고 하지 않음. 막 11:26
- 형제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음. 마 5:23,24
- 도움이 필요한 자를 무시함. 잠 21:13
- 가족 간에 존중이 없음. 벨전 3:7
-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함. 요 15:7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에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

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므로 잘못하실 리가 없으시고,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기도 102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일을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소망 362

꾸준함의 필요성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초기 73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원수의 세력을 약화시키라.” PUR 6, 5, 1902

“그의 승리는 즐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쟁투 621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智 등)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정로 94

“만일 우리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결하여지고 많은 기도로 성취된 일만이 심판대의 시험에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봉사 263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도의 응답 약속은 확실함 -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냐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기도, 105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쟁투 622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쟁투 525

“하루하루가 영원 속으로 사라져 감에 따라, 시련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성령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일꾼들 위에 성결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누가 보든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께 배운 자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복음 교역자 288

“그들이 믿음으로 연합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동안 응답이 이르렀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흔들렸고, 그들은 새롭게 성령으로 채움을 받았다.” 행적 67

이제 늦은비를 받기 위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격려사

“대총회 본부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에 연례회의에서 ARME 기도팀이 함께 해준 사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주일을 통해 응답받은 기도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중보기도회를 가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보낸 여러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은 영원한 생명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 Jerry Page (대총회 목회부장)

“저는 ARME 기도팀과 그분들의 기도 사역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총회 연례회의를 통해 만나고 나서 우리 지회의 연말 회의에 초청하였습니다. 23개국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대형교회운동과 같은 새로운 바람도 아닙니다. 이 사역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승리한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출 17:8-16) 이러한 기도 모임은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렬하고 신실한 기도의 모임은, 경험하기만 한다면 전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 Paul Ratsara (남아프리카인도양지회장)

기도와 부흥에 관한 자료들

서적

True Revival - 엘렌 화잇
 사도행적 - 엘렌 화잇
 Lord, Revive us again - 마크 핀리
 10 Days in the Upper Room - 마크 핀리
 내 백성이 기도하면 - 랜디 맥스웰
 40 days of prayer - 데니스 스미스

웹사이트

Revival&Reformation : www.revivalandreformation.org
 10 day prayer event : www.operationglobalrain.com
 Arme Bible Camp : www.arme biblecamp.com
 United Prayer Testimonies : www.unitedprayer247.com

Copyright © 2011 by Melody Mason, ARME Prayer Ministries, and Janet Page, Associate Ministerial Secretary for Prayer and Pastoral Families,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All Scripture references are taken from the King James Version. All quotes are from books or articles written by Ellen. G. White, unless otherwise noted. Emphasis is supplied by the compilers.

The prayer mini-handbook is designed to be shared freely. Reprinting, copying and translation is encouraged, as long as the content used is kept intact, copyright is attributed to the above named parties when the material is shared, and the reproduced material is not sold. The original electronic version of this mini-handbook can also be obtained by visiting one of the above website locations. Please contact us (unitedprayer247@gmail.com)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the use of these materials.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 10:8

번역 : 조성휘 (samc5957@gmail.com)